

도, 시·군과 함께 막바지 현안 챙기기

행정부지사 주재, 시군 부단체장회의 개최... 고흥사랑기부제·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협조 등 현안 논의·시군 건의사항 검토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2년 제6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의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에로해소 자문단 구성 등 도의 협조 안전 2건과 국도비사업 추가예산 건의 등 시·군 건의사항 11건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대응,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홍보, 지자체 합동평가 등도와 시군이 대응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군에서는 통계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예산추가 배정 건의



지난달 3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2022년 제6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 11건에 대해 도의 협조와 중앙부처 대응을 건의했다.

이에, 도에서는 중앙부처, 국회 등 중앙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함께 힘을 실어 공동 대응하고, 도비가 필

요한 사항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적극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논의된 현안은 도가 시·군과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시·군에서도 차질없이 사

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챙겨달라"면서, "내년에도 시군과 소통하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산학융합원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Tech in 전북 청년, 혁신을 품다’

2011년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첫 공모 선정
대학·기업 공간적 통합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
대기업 지역 철수에도 불구 혁신사업 수행해와

전북산학융합원(군산시 오식도 등 소재)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2022 Tech in 전북 청년, 혁신을 품다 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시·도의원 등의 정계인사와 기관, 기업, 대학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와 대학과 기업의 합작품인 산학융합 성과물을 시찰했다.

이번에 설립 10주년을 맞은 전북 산학융합원은 산업봉사자원부가 2011년 산업단지내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해 군산산업단지내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대학과 기업이 이원화된

산학협력 구조에서 공간적 통합을 통해 현장 맞춤형 혁신적 공학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후 2013년 9월 군산대 등 4개 대학의 캠퍼스관과 87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연구관을 갖추고 산학융합지구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북산학융합원이 설립됐다.

산학융합원은 그간 대기업의 지역 철수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혁신적인 사업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이날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전북 산학융합원 10주년을 축하하며, 군산 지역 더 나아가 전북 지역의 혁신기관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해 주시길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 군산=김판곤 기자

‘함께 자원봉사·함께 행복’... 전북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린 2022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대회에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김광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함께 김장을 담고 있다.

전북도 자원봉사센터, 김장나눔행사 등 기념행사 개최
남원 최기식 씨·군산 이익순 가족 등... 최장 봉사왕 시상

사회 곳곳에 따뜻한 사랑을 선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모여 김장나눔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 이하 도센터)는 지난 30일 전북도청 야외광장에서 '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2022 전라북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함께 자원봉사 함께 행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UN에서 매년 12월 5일로 지정한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도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도 자원봉사왕에는 도내 활동 봉사자 중 연간 봉사활동 최장시간을 기록한 남원시 최기식님(개인부문, 1,221시간), (사)전주시새마을회(단체부문, 80,620시간), 장수군 행복한 손

놀이 재봉틀 봉사단(단체부문, 5,145시간), 군산 이익순 가족(가족 부문, 954시간)이 선정돼 상을 받았다.

이어진 김장나눔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도교육감을 비롯한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임직원들이 참여해 김장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담근 2,048kg의 김장김치는 도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정 309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따뜻한 실천을 이어가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광호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행복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80만 도내 자원봉사자들이 불편함없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월남전 참전 용사, 어울림 대회 개최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전북보훈회관에서 전라북도 월남전참전자 회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월남전 참전 제58주년을 기념하고 파병용사와 함께하는 어울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참전한 월남참전 파병용사와 국제사회 평화유지 및 재건지원 등에 헌신한 파병용사의 공헌과 희생을 기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공연 △내빈소개 △모범전우표창 △대회사 △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58년전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세계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먼 타지에서 사선을 넘나들었던 파병용사의 용기와 희생에 대하여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는 이들의 희생을 잊지않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이진공공기관과 워크숍 개최

전주여건 개선 방안 등 상생발전 모색

전북도는 전주시 완주군 이진공공기관 실무자가 함께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주 빨강치마 리조트에서 11월 30

일부터 12월 1일(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지자체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현안 협조

사항 △2023년 지역발전계획 수립 △우선구매 목표비율 설정 △태 마스터스 대회 홍보사항 등을 전달하며, 지자체와 이전기관 실무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특강에 나선 우석대 황태규 교수는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한 혁신도시 개발'을 주제로 정주여건 개선과 이진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역발전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의한다. '마음을 움직인다'를 주제로 한 상상에너지 고석현 소장의 프레젠테이션 강연도 이어져 지자체와 기관간 협력 의지를 다짐 예정이다.

이찬준 도 지역정책과장은 "이진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같이 힘을 모아 새롭고 미래가 있는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에이즈 예방 홍보

도, 전주시 보건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 등 참여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함께 예방합력, 함께 응원합력'을 주제로 에이즈에 대한 바른 정보와 예방법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12월 1일 제35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전북도, 전주시 보건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가 함께 전주 각사 및 전북대학교 일대 등 5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또, 도내 6개 중등·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다. 대중교통(시내버스) 내부 광고와 유선방송, 홍보물 등 가용매체도 활용한다.

특히,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상담, 무료 익명검사, 올바른 콘돔사용 안내도 병행한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